

【논문】

##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가?

김 은 희

【주제분류】 정치철학, 사회철학, 윤리학

【주요어】 마이클 샌델, 시민적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요약문】 이 논문은 롤즈에 대한 샌델의 비판이 타당한가의 문제보다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맞서 샌델이 제시하는 공화주의적 대안이 과연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지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샌델의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적 토론장에서 우리는 종교적, 도덕적 담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기통치(self-rule)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 덕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이다. 셋째, 전지구적인(global) 시장주의를 막는 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 넷째, 그 현실적인 대안은 주권의 분권화라는 다원주의이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되었거나 가능한 주요 반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샌델은 도덕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통합주의적(integrationist) 가치를 제시하는 반근대적 공동체주의자이다. 둘째, 샌델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셋째, 주권의 분권화로 전지구적 시장주의를 막는 것은 현실가능하지 않다. 넷째, 샌델이 내세우는 시민적 덕과 분권화 다원주의는 서로 충돌한다. 필자는 이 네 가지 반론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반론은 샌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을 통해 대답될 수 있으며, 현실가능성을 묻는 세 번째 반론과 이론 정합성을 묻는 네 번째 반론이, 샌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 1. 서론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들』(*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서이며<sup>1)</sup>,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열었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롤즈 이론가들의 비판적 검토를 받았다. 샌델은 늘 롤즈의 비판자로서 논의되었고, 롤즈의 이론에 얼마나 적중한 비판을 하였는가에 따라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sup>2)</sup>

롤즈에 대한 비판으로 담론을 시작했기 때문에 샌델의 논의를 롤즈의 반론으로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적절한 일이다. 하지만 샌델의 정치철학을 롤즈의 정의론 자체에 대한 비판론으로만 일괄해서는 안된다. 그는 자유주의 정치 풍토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그의 최종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롤즈에 대한 논의는 그가 롤즈를

- 1) 샌델은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2nd edition, 1998)(본문에 인용한 것은 2판이다. 이하 LLJ로 표기), *Democracy's Discontent*, 1996(이하 DD로 표기), *Public Philosophy*, 2005(이하 PP로 표기), *The Case Against Perfection*, 2007,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2009, *What Money Can't Buy*, 2012 등을 썼다. 이것들 중에서 샌델의 사상의 원본을 담아낸 것은 첫 두 저작이다. 그는 이 두 저작에서 체계화된 그의 정치철학을 좀 더 대중적인 눈높이로, 그리고 대중적인 이슈에 대한 정치평론을 통해 선별 제시한 책이 *Public Philosophy*이며, 그가 체계화한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기존의 정의 담론들을 강의용으로 정리한 것이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이다. *The Case Against Perfection*은 실제로 그가 생명윤리 관련 공공정책을 위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그의 정치철학이 현실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지를 알려주는 저서이다. 즉, 그의 이론의 현실적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What Money Can't Buy*은 두 번째 저서에서 형성된 그의 정치경제학을 현실적 이슈에 적용하여 대중들에게 알리는 저서이다. 이렇게 볼 때, 샌델의 사상은 이미 첫 두 저서에 모두 나타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치철학자들의 관심은 첫 두 저서에 몰려 있다.
- 2) 롤즈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다룬 국내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인숙, 「M. 샌델의 공동체주의 연구-J. 롤즈의 정의론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고려대철학연구소) 16집, 1993년. 홍성우, 「자유주의적 자아관의 한계: 샌델의 롤즈 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28집, 2003년. 홍성우,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샌델의 비판」, 『범한철학』33집, 2004년. 롤즈나 자유주의를 언급하지 않고서 샌델을 비판한 국내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민주법학』제46호, 2011년.

자유주의 정치풍토를 이론적으로 변호한 대표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가 롤즈의 이론을 오해했다는 비판론은 이론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어도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샌델의 대안 제시의 추동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그는 자유주의 정치 풍토 외에 다른 대안이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에서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샌델은 미국의 정치적 전통과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그 전통 안에 깃들여 있는 공화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롤즈에 대한 샌델의 비판이 타당한가의 문제보다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맞서 샌델이 제시하는 공화주의적 대안이 과연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지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2절에서, 샌델의 정치철학의 대강을 안내할 것이다. 샌델의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적 토론장에서, 우리는 종교적, 도덕적 담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기통치(self-rule)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 덕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이다. 셋째, 전지구적인(global) 시장주의를 막는 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 넷째, 그 현실적인 대안은 주권의 분권화라는 다원주의이다. 그리고 3절에서, 샌델의 대안에 대한 주요 반론들을 살피고 평가할 것이다. 첫째, 샌델은 도덕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통합주의적(integrationist) 가치를 제시하는 반근대적 공동체주의자이다. 둘째, 샌델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셋째, 주권의 분권화로 전지구적 시장주의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넷째, 샌델이 내세우는 시민적 덕과 분권화 다원주의는 서로 충돌한다.<sup>3)</sup> 필자는 이 네 가지 반론들 중에 첫 번

---

3) 샌델의 대안제시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한 이유는 그 네 비판들이 다루는 샌델의 대안의 내용의 유기적 관계와 관련하기 보다는 어떤 정치철학적 대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의 각 종류를 포괄하기 위해서이다. 이 논문이 다루는 첫째 반론은 어떤 정치철학이 보수성, 반근대성을 가지는가를 살펴본다. 이것은 다소 필자의 특정 관심사를 적극 반영한 반론이다. 둘째 반론은, 어떤 정치철학이 극복하고자 하는 라이벌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차별성이 그 정치철학에 과연 존재하는가에

째, 두 번째 반론은 샌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을 통해 대담될 수 있으며, 현실가능성을 묻는 세 번째 반론과 이론 정합성을 묻는 네 번째 반론이, 샌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을 보이게 한다.

## 2. 샌델의 정치철학

### 2.1 롤즈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샌델은 롤즈적인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좋은데 대한 옳음의 우선성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으로 요약하고 이 주장을 비판한다.(LLJ p.185) 샌델은 “좋은데 대한 옳음의 우선성” 주장이,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칸트적인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라는 인간관에 의해 드러나며<sup>4)</sup>,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국가 중립성 입론에 의해 드러난다고 파악한다. 샌델이 롤즈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 ① 자발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들』에서 샌델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칸트적 인간관을 추출해낸다. 여기서 “칸트적”이라 함은 칸트의 형이상학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무론적 구분법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의무론적 구분법이란, 옳음(the right)을 좋음(the good)으로부터 구분

---

대한 것이다. 셋째 반론은, 어떤 정치철학이 내세운 대안이 현실적인가를 따진다. 넷째 반론은 어떤 정치철학이 내세운 대안이 이론적으로 정합적인가를 따진다.

- 4) “unencumbered self”를 “무연고적 자아”로 번역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자아”(이인숙, 1993), “부담을 지지 않는 자아”(김영기, 2011)로 번역하는 것도 적절하다. 하지만, “무연고적 자아”라는 번역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샌델을 다룰 때에 많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채택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샌델은 롤즈가 칸트의 예지계와 칸트적 형이상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LLJ p.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이 보기에 『정의론』에서 롤즈가 칸트적이고 의무론적인 이유는 그가 정의(옳음, the right)를 여러 선들(the good)에 기반하지 않고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옳음의 기초를 칸트는 자율적 주체에서 찾았고, 이 주체는 그 주체가 고려하는 선들(욕구, 경향, 목적들)과 분리되며 그 선들에 우선한다. 주체 앞에 놓인 선들은 주체에 의해 취사선택된다. 그래야 한 인간은 주체로서 경향성과 욕구 등의 선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 인간이 되고 자율적 인간이라야 도덕법칙을 알아내고 지킬 수 있다. 샌델은 이런 관점을 “자발주의적(voluntarist)”이라고 말한다.<sup>5)</sup> 샌델에 따르면 이런 자발주의적 관점은 롤즈에게도 나타난다.(LLJ p.59) 샌델이 볼 때, 롤즈는 칸트처럼 경험적 관점을 배제하고 선형적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다양한 선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 선들에 앞서 정의(justice)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 정의는 자발주의적인 인간능력을 가정할 때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 앞에 놓인 다양한 좋은 것(욕구, 경향, 목적들)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의 담지자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런 능력의 행사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이다. 샌델이 보기에, 이 점에서 칸트와 롤즈는 유사하다.

하지만 샌델이 볼 때, 이런 인간관은 롤즈가 원하는 평등 지향적인 분배정의관, 특히 차등원칙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한다. 차등원칙의 저변에는, 개인의 천부적 능력까지도 자연적 운에 속하므로 그것을 인류의 공동자산인 것처럼 간주해야 도덕적으로 자의적이지 않은 정의

---

5) “voluntarism”은 철학사적으로 “intellectualism”(主知主義)와 대조되는 전통으로서 흔히 “주의주의(主意主義)”로 번역된다. 필자는 그러한 철학사적 논쟁의 맥락에서는 “주지주의”와의 대조적 의미를 연상시키는 “주의주의”라는 번역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샌델 논의의 맥락에서는 현대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선택의 자유 중심의 인간관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데에 “자발주의”라는 번역어가 더 좋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번역어가 학문공동체의 통일된 용어사용에 혼란을 준다면 필자는 이 번역어를 고수하지는 않겠다.

로운 분배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롤즈의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샌델이 보기에 (a)개인의 천부적 능력이 정의로운 분배원칙을 세울 때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으로부터, (b)개인의 천부적 능력이 사회전체의 소유물인 양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은 나오지 않는다. 어떤 것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사회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샌델이 보기에, 롤즈의 차등원칙은 개인의 천부적 능력이 사회의 공동 소유물인 양 간주되어야 지지될 수 있기에 (b)가 입증되지 않으면 차등원칙의 도출은 어렵다.(LLJ pp.95-103) 이 외에도 샌델은 자신이 처한 사회의 특수성마저도 무지의 베일로 가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결정이 공정함을 획득한다면, 그 결과는 어느 한 지역(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격체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롤즈의 정의론은 국내적 논의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롤즈 정의론의 부정합성을 말해준다고 지적한다.(DD p.17) 샌델이 보기에 이런 부정합성은 롤즈가 자발주의적 자아관을 버리고 구성적 자아관을 가지면 해결된다. 즉, 자아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들, 선들과 분리되어 그것들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해 구성된 존재이며, 동포, 이웃의 선들과 연결되고 그것들로 구성된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로 확장된 자아관을 갖게 되고, 최소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차등원칙의 실현은, 확장된 자아 즉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LLJ p.172)

## ② 국가 중립성 주장에 대한 비판

롤즈적 자유주의가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아관에 대한 샌델의 비판에 대해서 많은 롤즈 옹호자들은 롤즈의 자아관은 단지 인생의 다양한 선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샌델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응수한다.<sup>6)</sup> 그리고 혹자는 자아에

6) Will Kymlicka, “Liberal Egalitarianism and Civic Republicanism: Friends or Enemies?”, *Debating Democracy's Discontent: Essays on American Politics, Law, and Public Philosophy*, edited by Anita L. Allen and

관한 철학적 담론은 롤즈가 나중에 제시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의 성립과 무관한 담론이므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응수한다.<sup>7)</sup> 하지만, 샌델이 비판하는 것은 단지 롤즈의 철학적 인간학이 아니라, 롤즈적 자유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정의의 우선성이다. 즉, 샌델은 정의(옳음)가 선(좋은)들과 구분되며, 다양한 선들을 정리해 주는 고차적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비판하는 것이다. 샌델이 보기에 이 비판은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대응했을 때에도 유효하다.<sup>8)</sup> 롤즈는 정치적 정당성이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기대지 않고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샌델이 보기에 이것은 정의가 선들에 우선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 개념을 통해 중립적인 공적 토론장을 지지한다.<sup>9)</sup> “공적 이성”은 정치적인 것에만 한정된 의제를 다루며, 모든 이들이 승인하는 정치적 정의관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포괄적 교리들의 내용을 정치적 정당성의 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표현한다. 롤즈는 공적 토론장이 공적 이성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적 토론장은 좋은 삶에 관한 가치들을 모두 논하는 포괄적 교리들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샌델이 보기에 이런 공적 이성이 지배하는 중립적 공론장은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도덕적 문제들을 그저 덮어둘 뿐이다. (LLJ pp.196-202)

### ③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복지에 대한 비판

Milton C. Regan, Jr. Oxford University Press, 1998(이하 DDD) pp.133-139.

7) Richard Rorty, “A Defence of Minimalist Liberalism”, DDD, p.118.

8)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다음을 보라.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2nd edition, 1998. pp. 184-218.

9) 롤즈는 자신의 자유주의가 “국가 중립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좋은 삶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으로서 그 기조를 드러낸다. 김리카는 중립론은 반환전주의와 같은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롤즈 역시 중립론을 따른다고 본다. Kymlicka, p.133. 자유주의의 중립성 입론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관한 관계는 다음을 보라. 김은희, 『자유주의의 중립성 입론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서울대 석사논문, 2000년).

샌델에 따르면, 미국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케인즈 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 성장과 공정 분배의 복지의 정책과 잘 어우러져 있다.(DD p.274) 미국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책은 시민들에게 경제 성장의 결실이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정의원칙에 따라 정책을 운영한다. 하지만 샌델이 보기에 이것은 시민들을 능동적인 정치적 주체로 키우기보다 가치판단하기를 멈춘 수동적인 소비의 주체로 만들 뿐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케인즈 경제정책은 총수요를 늘리는 일을 급선무로 두었고, 총수요를 늘리는 일은 그 수요의 성격이나 소비자의 선호가 지니는 바람직함 여부와는 관련이 없었다. 샌델이 보기에 이러한 케인즈 경제정책은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들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중립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잘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케인즈 정치경제학과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시민적 전통이 가지고 있던 육성적 기획을 버리게 되며, 그 빈 자리에 자발주의적 자유관을 내세우게 된다.(DD pp.262-273) 하지만 샌델은 전국적인 규모로, 아니 전지구적으로 확장해가는 대기업 등, 대규모의 경제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 성장의 결과로 나오는 물질적 재화에 대해 중립적인 분배함으로써 복지를 도모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민들이 가지는 불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최소수혜자들의 처지를 가장 높이 끌어올리는 데에 소용되는 재화는 소득과 부라는 재화이며, 샌델이 보기에 이것은 시민들 사이에 경제만능적 태도가 만연하게 되는 현실을 초래할 뿐, 그것을 완화하지는 못한다.

이상의 ①, ②, ③의 요소들로 인해 샌델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불만에 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샌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불만은 첫째, 시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과 둘째, 국가적 규모든 작은 규모든 모든 규모의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발생한다.(DD p.3)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정부로부터 물질적인 공적 부조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힘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최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암암리에 형성하고 지지해 왔던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무기력함과 통한다는 것이 샌델의 진단이다. 샌델이 롤즈의 이론을 공격한 것은 롤즈의 이론과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는 자유주의 공공철학이라는 더 큰 대상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샌델이 민주주의의 불만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그와 동시에 공정 분배의 복지를 제시하고, 공적 담론에 있어 특정한 종교관, 도덕관을 배제하는 중립성 입론을 지지하는 공공철학이다. 이제 이에 맞서 샌델이 제시하는 대안적 공공철학의 핵심을 개괄해보겠다.

## 2.2. 시민적 공화주의<sup>10)</sup>라는 대안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샌델은 미국 정치역사에서 관찰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공화주의 정치철학 간의 경합을 보여주면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민주주의의 불만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샌델은 미국 정치역사의 전반부에는 공화주의 전통이 강하였고, 후반부로 가면서 자유주의 전통이 지배적으로 되었다고 보면서, 점차 망각된 공화주의 전통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한다.<sup>11)</sup>

---

10) 그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일컫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시민적 덕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덕의 육성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 공화주의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논자들이 샌델의 입장을 주로 그렇게 일컫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샌델의 대안적 입장을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일컫겠다. William A. Galston, “Political Economy and the Politics of Virtue: US Public Philosophy at Century’s End”, DDD, p.78. 이인숙, 285쪽.

11) 이런 점에서 샌델이 복고적이며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 왈저가 잘 평가하였듯이, 이러한 샌델의 작업은 한 사회의 성원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치에 대한 호소를 통해 사회 비판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내재적 비판”이기 때문이다. 샌델은 다시 공화주의 전통이 지배했던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미국 사회 안에 내재한 사상적 자원들을 다시 잘 해석하고 변주하여 활용하는 사회비판과 대안제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Michael Walzer, “Michael Sandel’s America”,

그가 제시하는 시민적 공화주의의 특징들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깊은 도덕적 논의를 배제하는 자유주의적인 중립적 공론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는 공론장을 제시한다. 둘째,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최우선 과제로서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존중을 제시한다면, 시민적 공화주의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서 자기통치에 필요한 시민적 덕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경제(분배)정책은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베푸는 것에 주력하지만 시민적 공화주의는 경제 논리가 모든 영역의 고유 분배 메커니즘을 압도하는 것을 제어하고 시민들의 자기통치의 능력을 돕는 경제체제를 지지한다. 넷째,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국가적 규모를 넘어 전지구적 규모로 확장하는 경제 세력들을 제어하기 위해 주권을 국가적 규모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지만 시민적 공화주의는 국가보다 작은 단위의 규모로 분권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 ① 새로운 공론장: 도덕적, 종교적 담론의 도입

샌델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함축하고 있는 중립성에 대한 열망을 비판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도덕적 문제는 좋은 삶에 관한 특정한 관점들에 대한 토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령, 낙태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 국가가 각 주정부의 재량권에 맡겨야 국가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태아가 인간일 경우 중대한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는 처사이다.(DD pp.20-21) 마치, 흑인 노예제도의 존속 여부를 각 주정부의 재량권에 맡기는 중립론자들이 중대한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동성결혼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 국가가 각 개인의 재량권에 맡겨야 국가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각 개인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어떠한 점잖지 못한 짓을 해도 국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관용하는 셈이며, 이는 동성결혼을 자신의 인생

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샌델은 말한다.(DD pp.103-108) 태아가 인간인지 여부와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동등한 의미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혼을 구성하는 가치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은 도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델이 볼 때, 자유주의적 중립성은 이런 도덕적 관점들은 특정한 선관(the conception of the good life)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샌델은 특정한 선관이 우월할 수 있으며, “참(true)”일 수도 있다는 강한 어조로 중립성 주장을 비판한다.(DD p.20)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덕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공적 담론의 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도덕적 언어로 무장된 근본주의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나쁜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샌델의 지적이다.

또 다른 예로, 샌델은 휴일 논쟁을 언급한다.(DD, pp.65-68) 일요일이 아닌 날을 종교적 의무일로 지키고 싶어하는 특정 종교인들에게 중립주의는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휴일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축구광이 자신이 기다려온 축구 빅매치가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까지 중립성 하에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곤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에 나온 종교인의 휴일 청원은 종교적 의무를 하기 위한 권리를 청원한 것임에 반해, 나중에 제시된 축구광의 휴일 청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샌델은 그 청원은 동등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중립성 풍토는 이 두 사람의 청원을 모두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 아닌 중립성의 어법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샌델이 보기에 어떤 이에게 있어 종교적 신념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축구애호와 같은 선택적 가치가 아니다.

또한, 샌델은 중립성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나치주의자들의 거리행진과 흑인인권운동가들의 거리행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두 진영

모두 동등하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모두 승인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샌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가치있는가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며, 그런 관점 하에서 나치주의자들의 거리행진을 막을 도덕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DD pp.83-86)

### ② 자기통치(self-rule)에 필요한 시민적 덕의 육성

이처럼 샌델은 공론의 장에서 도덕적, 종교적 관점들이 논의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다원주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강한 어조로 “참”을 운운하기도 한다. 그가 중립성에 의거한 역대 판결들을 비판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로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자기통치를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시민적 덕이다. 혹은 이런 사례들에 대한 샌델의 해석들로부터 추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직접 샌델이 명시적으로 시민적 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샌델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두는 반면, 공화주의는 자기통치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둔다고 대조하면서 후자를 옹호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동료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이런 능력 즉 시민적 덕을 형성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 ③ 시장주의를 막는 정치경제학

샌델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치경제학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치능력의 발휘를 돕는 산업구조이다. 샌델이 보기에 미국의 역사시기 중에 케인즈적 경제정책이 지배적이기 전에 미국의 명망있는 정치가들은 늘 어떤 정책의 도입이 시민적 덕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고민했다. 가령, 토마스 제퍼슨은 대규모 제조업의 도입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산업은 시민들이 독립성

과 자치의 능력을 저해하고 기업주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기 때문이었다.(DD pp.124-125) 반면, 케인즈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의 도입을 놓고 고민할 때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고, 혹은 더 많은 성장을 일으켜서 더 많은 혜택을 복지수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샌델이 볼 때, 이런 케인즈 이후의 경제정책 사상은 중립주의적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도 잘 조화되어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런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따르면 시민의 자치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 분배 정책의 주요한 고려사항이라기보다 더 큰 성장을 통해 더 많은 복지혜택의 공정 분배가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이 때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 부조는 금전적 혜택으로 이뤄지게 되고 금전적 혜택은 그 계층들이 더 왕성한 소비자가 되게 한다. 하지만 샌델이 보기에 부유한 계층들과 그다지 큰 차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개인들은 권리가 평등해졌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계층은 시장에서 모든 재화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샌델이 보기에 이는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샌델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비영리법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 그리고 전국적 확장을 목표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반대운동을 시민적 공화주의 정치경제학으로 제시한다.(DD pp.329-338)

둘째, 샌델은 모든 영역에 시장의 논리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정치경제 구조를 꿈꾼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고유한 가치들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권리는 점차 우리의 삶의 환원불가능한 고유한 영역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샌델은 시장 경제(a market economy)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이 모든 가치 영역에 도입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시장사회(market society)’를 거부한다.<sup>12)</sup> 샌델은 왈저와 마찬가지로 돈의 논리가 침탈해 들어올 수 없는 고유한 분배원리를 내재한 가치의 영역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12)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순 역, 와이즈베리, 2012년. 29쪽.

## ④ 다원주의: 주권 분권화

케인즈식 경제정책은 점증하는 경제적 힘들, 기업의 힘들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정치권력을 필요로 하였다. 주정부 차원으로 분권화되어 있었던 미국의 주권형태는 점차적으로 전국 차원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샌델이 볼 때 이런 정치의 전국화 현상은 이미 한 국가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확장하는 경제적 힘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국화된 정치 형태 속에서 시민들은 자기 운명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 전락한다고 느낀다. 정치는 점차 시민의 삶과 동떨어지게 된 것이다. 샌델은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특수한 도덕적 의미를 주는 장소와 이야기, 사건들을 찾아내어 공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샌델에 따르면, 전지구화된 경제적 힘들에 맞서기 위해 세계시민주의가 동원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세계시민주의적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인 정치권력을 가진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불가능한 일일뿐더러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제도는 더 확장된 시민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시민 정체성의 육성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DD p.345) 따라서 샌델은 국가 아래의 가능한 모든 단위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DD p.348)

이상으로 볼 때,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통치이며,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이 바로 시민적 덕의 육성임을 알 수 있다. 경제구조도 모두 이런 육성적 기획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해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샌델의 대안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고 샌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되지 못하고 남는 문제들을 구분해보도록 하겠다.

### 3.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에 대한 반론들

#### 3.1 통합주의, 반근대성에 대한 반론

벤하비브는 공동체주의의 조류를 크게 둘로 구분한다.<sup>13)</sup> 첫 번째는 통합주의적 조류로서, 그녀가 보기에 매킨타이어와 샌델이 이런 경향을 가진다. 벤하비브에 따르면 이 조류는 근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오직 어떤 정합적 가치체계의 회복, 활성화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경향을 갖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런 가치체계의 모델로 종교적인 모델을 생각한다. 두 번째는 참여주의적 조류로서, 그녀가 보기에 테일러와 왈저가 이런 경향을 가진다. 그녀에 따르면 이 조류는 근대성의 문제를 소속감, 일체감, 연대감의 상실이라기보다 정치적 주체능력과 효력의 상실에서 찾는다. 이런 경향을 갖는 공동체주의자들은 근대사회의 영역분화를 극복해야 할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sup>14)</sup> 벤하비브의 분류와 비슷하게 무페 역시 공동체주의를 두 부류로 나눈다. 무페에 따르면 이 입장들은 근대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구분되는데, 샌델과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공동선의 명분하에 근대적인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거부하며 전근대적인 정치관을 옹호하며 윤리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무페에 따르면 이에 반해, 테일러와 왈저는 자유주의의 인식론적 전제들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근대적인 다원주의를

---

13) 벤하비브와 무페는 “공동체주의”를 논의하면서 샌델의 이론들을 분석, 비판한다. 이들은 주로 샌델의 *Liberalism and the Limits fo Justice*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혹자는 샌델의 “공화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샌델의 공화주의의 제시는 *Democracy's Discontent*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샌델은 전자에서 후자로 가면서 이론의 변화를 보인다고 보다, 이론의 전개로 보이는 진행을 한다. 즉, DD에서 보이는 샌델의 생각들은 거의 LLJ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벤하비브와 무페가 샌델의 논의를 다루는 방식은 DD에 관련된 논의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14) Seyla Benhabib, *Situating the Self: Gender, Community and Postmodernism in Contemporary Ethics*, Polity Press, 1992, p.76.

지지한다.<sup>15)</sup>

샌델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샌델의 제시방식에 탓이 있다. 샌델은 중립성이 지배하는 자유주의적 공론장을 비판하면서 낙태 논쟁의 예를 들 때,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참이라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DD p.20) 벤하비브와 무페가 단지 이 문구만을 생각해서 샌델을 통합주의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론의장에서 다양성 존중을 위한 중립주의보다 “참”인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샌델의 표현을 고려하면, 벤하비브와 무페의 평가가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이 직접 배아와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특정한 형이상학적, 종교적 논거도 도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가 말한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참이라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아에게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면”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논거가 참일 경우를 고려하여 낙태의 도덕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샌델이 중립적 공론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혹은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적으로 보다 나은 답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공적인 도덕적 문제들을

15) Chantal Mouffe,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1993. p.19.

16) 샌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유전학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인간에 대한 반론』, 강명신 역, 동녘, 2007에서 샌델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 소유가 아닌 거저 주어진 선물로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가 종교적 감수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주장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즉, 그의 태도가 종교적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특정한 종교적 입장의 논거를 활용한다는 혐의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58-59쪽. 나는 벤하비브와 무페가 참여주의적 노선으로 분류하는, 혹은 근대적이라고 바라보는 찰스 테일러가 오히려 특유의 전체론적인(holistic) 형이상학적 근거로 자신의 다원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테일러는 샌델에 대한 논평적 논문에서 자신의 다원주의 사상을 제시한다. 테일러는 헤르더-훔볼트 전통에 있는 다원주의를 제안하는데 철학적 윤리학과 정치학은 형이상학을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진단한다. Charles Taylor, “Living with Difference”, DDD, p.219.



너무 빨리 회피하는 경향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참”이라는 말을 샌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실용주의적 자유주의자 로티 역시 비판한다. 로티는 샌델에게 “참”을 찾는 노력보다, 타협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하지만, 각종 공적인 이슈들(낙태, 동성애, 배아연구, 교육, 복지, 인센티브제도 등)에 관한 샌델의 논의는 특정 종교적 교리나 특정 진리론을 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시민들이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적인 언어와 논증으로 논의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볼 때, 샌델이 말한 “참”이라는 개념은, 시민들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적인 논증을 구사하여 충분히 더 나은 심의를 통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해결책이 가진 성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샌델과 중립론자 간의 차이는 남아 있다. 중립론적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핵심사항들(헌법적 핵심들)에만 이 개념을 쓰고,<sup>18)</sup> 그 외 다른 사회적인 쟁점들의 논의는 다양성 존중을 위해 이 개념을 회피하는 것에 반해 샌델은 이 검증도구를 정치적 핵심사항들 외에 사회적인 쟁점들에도 확장하여 쓰고자 한다.<sup>19)</sup> 하지만, 이렇게 더 많은 사회적 쟁점들에도 이성적인 논증을 시도하여 최선의 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반근대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롤즈는 거부하겠지만 하버마스도 공적 담론의 토픽을 열어 놓고 그 모든 토픽에 관하여 진리담론, 정의담론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sup>20)</sup> 하버마스에게 중요한 것은 논거의 중립성이었을 뿐이다. 샌

17) Rorty, “A Defence of Minimalist Liberalism”, DDD, p.120.

18) 여기서 내가 “이 개념”으로써 의미하는 바는, 공적 담론에서 시민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샌델이 보기에 “참”인, 롤즈가 보기에 “공적인” 논거의 성격을 가진 개념을 나타낸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적 이성(public reason)이 적용되는 범위를 “헌법의 핵심사항들(constitutional essentials)”와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들”에 관련된 이슈들에 한정하였다.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214

19) 여기서 내가 “검증도구”로써 의미하는 바는, 시민들 간의 공적 토론 혹은 심의를 말한다. 즉, 어떤 주장이 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시민들이 특정한 형이상학이나 종교적 교리에서 논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의 힘을 통한 토론을 말한다.

델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은 여전히 가치통합주의자로서 보일 수 있다. 그는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삶에 관한 관점이 정치에 관한 관점의 성립에도 깃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그는 선관(the conception of the good)과 정의관(the conception of the right)이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샌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the good)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치를 위한 시민적 능력 즉 시민적 덕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동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선은 공동의 삶에 관련된 선이며, 이것은 정의에 관한 관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롤즈 역시 정치 공동체 자체를, 그리고 정의감이라는 시민적 덕을 중요한 정치적 선으로 인정한다. 정치공동체의 협력상태를 유지하는 기반을 모색하는 것은 샌델에게나 롤즈 혹은 다른 자유주의자들에게나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샌델과 자유주의자들이 다른 점은 샌델의 정치적 선은 개인이 살아가야 할 좋은 삶에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 반해,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선은 개인이 살아가야 할 좋은 삶의 경계에 존재하면서, 그런 삶들이 정의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도록 유도할 뿐이다. 가령, 자기 통치를 수행할 정신적, 물질적 노력을 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거대 산업 구조 속에 다소 자본가에 의존적인 노동을 하며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은 자유주의자에게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샌델에게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의와 선의 관계에 있어 샌델과 자유주의자 간에 분명히 이런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것은 샌델을 가치통합주의적이고 반근대적인 부류로 구분되게 하는 차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공동체의 자기 결정, 자기 통치를 위해서 시민들의 그런 능력의 배양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서 그것을 중요한 선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

20) Jü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the MIT Press, 1996, p.313.

개인적 삶과 활동에 관한 평가 기준으로 이런 공적인 시민적 덕의 기준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삶과 활동의 바탕에 정치공동체의 자기통치와 자기결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자유주의자들 역시 받아들인다면, 개인적 삶과 활동 안에 시민적 덕의 함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주의자들은 사소한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까지 공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전히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반대는 그 사소한 개인적 활동이 얼마나 시민적, 공적 영향력과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한 관점 혹은 입증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 3.2 자유주의와 차별화되는 대안인가?

위에서 보았듯이,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시민들에게 확실적 삶을 강권하기보다 자신들의 공동운명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정치 공동체라는 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의미있게 획득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샌델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자유주의적 옹호자들은 샌델의 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자유주의 정치철학 안에 이

---

21) 이 부분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는 롤즈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샌델은 롤즈의 정치적 인간관이 아닌 포괄적 인간관을 가진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을 롤즈의 구분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샌델은 자신의 어법에서 “공공철학”을 하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대답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비정치적 구분을 무효화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 샌델의 “공공철학”이 수용하고 있는 인간관이 롤즈의 것에 비해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공존 가능성을 헤칠 만큼 비공적, 비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자신이 처한 정치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인생에 관한 고민과 선택, 공동체 운명에 관한 심의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한 포괄적 교리라고 할 수 없다.

미 다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따르면, 샌델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또 다른 형태일 것이기 때문에 샌델이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동지를 잃는 일이다.<sup>22)</sup> 킴리카는 샌델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차이를 과장한다고 생각한다. 킴리카는 샌델이 공격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특징을 ‘합리적인 수정가능성’, ‘비완전주의적 국가’,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불평등에 대한 교정’으로 요약하고, 샌델이 이러한 세 가지 자유주의적 특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샌델 자신 역시 인간 인식이 지난 합리적인 수정가능성을 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샌델은 합리적인 수정가능성을 제시한 자유주의의 인간관을 ‘무연고적 자아관’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샌델은 공동체적 정체성과 시민적 덕에 관한 관점들을 옹호하지만 그의 옹호방식을 살펴보면 그는 그 관점들을 좋은 삶에 대한 특정 관점을 동원하여 옹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샌델은 공동체적 정체성과 시민적 덕에 관한 관점이 좋은 삶에 대한 관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연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립성 주장을 거부한다. 킴리카가 보기에 자유주의자들의 중립성 주장은 국가의 공적 정책의 정당근거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 관점에 입각할 수 없다는 비완전주의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킴리카가 보기에 이런 혼동은 샌델이 “좋은 삶에 대한 관점”을 모든 규범적 믿음과 혼동하기 때문에 나온다.<sup>23)</sup>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립성의 가치 역시 규범적 믿음이므로 어떤 하나의 “좋은 삶에 대한 관점”임에 틀림없고, 롤즈는 정의에 관한 하나의 도덕론을 제시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킴리카가 보기에 샌델은 자유주의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로티 역시 샌델이 자신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대립구도를 만든 것은 작위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와 자기통치를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시민적 덕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는 자유주의자는 없기 때문이다.<sup>24)</sup> 겔스톤도 롤즈

22) Kymlicka, “Liberal Egalitarianism and Civic Republicanism: Friends or Enemies?” DDD, p.131.

23) *ibid.* p.138.

가 시민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샌델과 의견을 달리 하겠지만, 자유주의 이론 내에 시민적 덕에 대한 형태와 교육에 관한 개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sup>25)</sup>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샌델은 자신의 공화주의는 분명히 차별화된다고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공화주의는 특정한 정치 문화의 형성에 적극적이다.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장려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달리 자신의 공화주의는 상업주의적인 관행을 막는 시도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현실적인 차이점으로 예시한다.<sup>26)</sup> 하지만 이러한 샌델의 대답은 킨리카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킨리카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 역시 상업주의가 시민의 삶을 경제권력들에 예속적으로 만들고, 시민들을 심의의 능력이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공적인 정당화를 통해 그런 관행을 좌절시키는 정책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샌델이 지지하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점”은 자유주의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공적인 가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샌델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가 포함하는 시민적 덕 개념과 별다르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가? 그렇지 않다. 샌델은 약한 형태의 공화주의와 강한 형태의 공화주의를 구분하며, 자신은 후자에 가깝다고 대답한다.<sup>27)</sup> 약한 공화주의는 정치참여가 인간 번성에 본질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을 거부하고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 하에 시민적 덕을 규정하는 공화주의이다. 반면, 강한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본질적인 시민적 덕 개념을 포함한다.<sup>28)</sup> 샌델이 생각하는 공화주의 정치는 단지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동 운명을 논하기 위해 “단지 반성하고 심의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

---

24) Rorty, “A Defence of Minimalist Liberalism”, DDD, p.117.

25) Galston, “Political Economy and the Politics of Virtue: US Public Philosophy at Century’s End”, DDD, p.82.

26) Sandel, “Reply”, DDD, pp. 329-330.

27) *ibid.* p.325.

28) *ibid.*

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대한 책임의 정황들 하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sup>29)</sup> 즉, 샌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공동 운명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심의하고 계산하는 것 외에, 각 자아들이 더 큰 자아를 이루어 왔던 이야기라는 정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sup>30)</sup> 개인의 자아는 공동체라는 더 큰 자아 안에서 파악되며, 개인의 번성은 그러한 더 큰 자아의 번성에 관련하지 않고서 논할 수 없다. 이렇듯, 샌델이 자유주의자들과 진정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에 관한 관점이다. 샌델은 정치공동체의 많은 선들을 인간 번성의 선에 관한 관점을 통해 설명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샌델은 특정한 인간관과 연결된 공화주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벤하비브의 지적대로 가치통합주의 노선을 따르거나 무폐의 지적대로 반근대적인 노선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떤 정치철학 안에 인간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정치철학을 가치통합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인간관이 그 정치철학 안에 어떤 위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롤즈에게도 “정치적인” 의미의 인간관이 존재한다. 그것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능력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간관이다.<sup>31)</sup> 이 인간관은 롤즈가 먼저 형이상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토대 위에 그 다음 논의를 풀어나가는 그런 위상을 지니지 않는다. 롤즈가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문화에서 소중한 공적 가치들로 여겨지는 정치적 가치(자유, 평등,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들을 정합적으로 구성해 내는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샌델이 말하는 자아 개념의 논의의 위상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가 특유의 자아 개념을 논하고 롤즈의 것에 맞설 대안적 자아 개념을 제시할 때, 그는 그것을 차등원칙이라는 평등주의적 정의원칙과 정치 공동체, 시민적 유대, 우애 개념에 더 정합적이라는 점, 그런 개념들을 더 잘 성립시킨다는 점을 들어 옹호한

29) *ibid.* p.326.

30) *ibid.*

31) Rawls, *Political Liberalism*, pp.29-35.

다.(DD, pp.16-17.) 그가 대안적 자아 개념을 논한 것은 새로운 형이상학적 인간본성론의 발견으로서 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성원들이 소중히 여기는 공적 가치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sup>32)</sup> 그리고 나서 그는 이 가치들을 가장 잘 정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간관, 자아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롤즈의 자아 개념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반론을 의도했다기보다, 롤즈를 위시한 많은 그 사회 성원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로 구성된 정치철학에 롤즈적인 인간관은 부정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반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샌델의 인간관은 이론적 성격이나 위상의 측면에서 롤즈적 자유주의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치통합주의적이라거나 반근대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인간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그의 공화주의는 내용상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 3.3 분권화라는 대안의 현실가능성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으려면, 현실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샌델은 그러한 대안으로서 정치적 분권

---

32) 이것은 그가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에 관심을 갖고 이론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 관행 안에 퍼져 있는 공공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관, 정의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정치전통 속에 아직은 남아있는 다른 공공철학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그의 공적, 정치적 사회 문화와 전통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신의 논의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의 원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샌델은 “공공철학”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공공철학이란, 우리의 관행에 암묵적으로 깃들여 있는 정치이론, 즉, 우리의 공적 생활을 안내하는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가정들을 가리킨다...(중략)...공공철학은 우리의 정치 담론과 정치 활동 뒤에 종종 무비판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배경을 형성한다. 일상적인 때에 공공철학은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을 잘 피해간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시대는 제일 원칙들을 그 표면에 드러나게 하고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DDD, p.4)

화를 제시한다. 월드론이 지적한 대로, 근대적 정치사회는 대규모화하였고, 시민들은 점차 정치를 생생하게 가까이 느끼는 경험을 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태에서 정치 공동체의 공동 운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함께 자기 통치할 수 있는 관심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억압적인 육성 계획이 될 수 있다. 월드론은 샌델이 근대 정치 사회의 규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여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자유”를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콩스탕의 문제의식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sup>33)</sup>

샌델이 이 문제의식을 모를 리 없다. 샌델은 이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참여를 위한 시민적 덕의 육성을 부차적인 가치로 제시하는 대안보다 정치의 단위를 더 작게 만드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듀이를 끌어들이며, 민주 정치란 전국화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과 정의원칙을 보장하는 체제라기보다 시민 교육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PP, pp.189-190.)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생활 속에 실행하고 훈련하는 교육은 시민들과 가까운 학교, 지역협동조합, 시민 운동을 통해 이뤄진다. 우리는 참여 활동을 통해 자기 통치의 능력을 키우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샌델은 전국 규모의 정치권력 형성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대공황 시기에 발생한 경제 위기와 정체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치가 채택한 정치 전국화의 노선(케인즈적 정책의 노선)에 대해 샌델은 그 시기부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즉, 샌델은 지역 공동체에서의 정치참여를 옹호하고 정치권력의 전국화는 비판한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에서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전국화라는 두 요소는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 요소는 함께 이루어져야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은 지역 시민들의 반대로 전국 체인 슈퍼마켓의 진입을 무산 시켰던 사례를 들어, 분권화 운동이 전국화된, 전세계화된 경제 권력들의 확장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DD, pp.334-335.)

33) Jeremy Waldron, “Virtue *en Masse*”, DDD, pp.35-36.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부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무산시킨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외의 다른 거대한 경제 권력의 침투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 지구적으로 확장해가는 기업들의 힘을 작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의 주권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그러한 대안은 공동체성이 더 강한 많은 나라들의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둘째, 그런 대안이 어느 시기에 현실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막강한 경제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역부족인 소규모 공동체들은 더욱 더 공격적이고 맹렬해질 것이며, 무장을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국화된 정치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공동체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것은 그 공동체들이 더 전투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sup>34)</sup> 셋째, 지역 공동체에게 분권화된 주권을 준다고 해도 그 공동체들은 대규모의 경제 세력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언젠가는 다시 연합을 시도하여 대규모의 단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다. 그런데, 샌델은 그러한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하지 않고서 그 현상만을 비판할 뿐이다.

미국은 전국화된 경제 세력들의 확장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전국화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샌델이 걱정된 바대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기 통치의 덕을 키우는 시민 교육보다는 개인적 권리를 잘 보장해주는 혜택제공 정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듀이가 주장하는 교육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은 맞는 지적이다. 하지만 듀이는 정치권력의 전국화를 비판했다기보다 수동적 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주의를 비판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치권력의 전국화는 지역 공동체의 시민 교육의 빈곤을 필연적으로 귀결하지 않는다. 따라서 샌델은 지역 공동체의 시민 교육과 정치 참여 활성화를

34) 로젠블룸은 미국 내 존재하는 무장화된 시민 군사주의 운동과 샌델의 시민 공화주의의 구분선을 확실히 정해줄 것을 샌델에게 요구한다. Nancy L. Rosenblum, "Fusion Republicanism", DDD, pp.287-288.

촉구하는 것에 그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권력의 전국화를 부정하고 주권 분권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3.4 다원주의와 시민적 덕의 충돌

왈저의 지적에 따르면, 샌델이 제시한 대안에는 다원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두 요소가 병존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충돌 혹은 긴장을 일으킨다.<sup>35)</sup> 여기서 왈저가 말하는 다원주의는 한 국가 안에 있는 작은 여러 공동체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시민적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덕을 육성하고 돌보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왈저는 샌델이 미국의 다원주의를 성립시킨 이민(immigration)의 현상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샌델이 강조하는 시민적 덕의 육성과, 이민자들이 형성한 다원적 공동체들 간의 충돌 가능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36)</sup>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나 참여 의지는 적은 대신, 그들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선, 즉 민주적인 정치 참여 능력의 배양이나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 제도의 목적에 맞는 가치판단 등을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는 중시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그들만의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샌델은 이런 공동체들을 동등하게 관용할 수 있겠는가? 샌델은 더 우월한 “좋은 삶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중립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했다. 그가 더 우월한 “좋은 삶에 대한 관점”의 기준을 가진다면, 그는 다원성을 존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충돌은 다원성들 간의 공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골몰해 온 근대 정치철학이 통상적으로 다루었던 문제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 정치철학자들의 이론 안에는 늘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의 충돌과 긴장이 있었고, 그들은 이것을 의식하고 양자의 위상을

35) Michael Walzer, “Michael Sandel’s America”, DDD, p.175.

36) *ibid.* p.177.

달리하거나 우선성을 매기는 등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샌델은 이 두 요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샌델이 모든 다원성에 대해 존중을 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무장된 시민 공화주의적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그는 이런 움직임은 핵무기가 도입된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할 뿐이다.<sup>37)</sup> 그런 공동체가 지닌 편협성과 배타성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질적이고 편협한 공동체들(이민자의 공동체들)이 모인 국가에서 그 사회 성원들은 어떻게 복지의 기반으로 강한 연대 의식에 호소할 수 있겠는가? 그 공동체들에게는 국가적인 강한 연대 의식이 별로 없다.

이런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첫째, 롤즈로 돌아가는 것이다.

샌델은 “좋은데 대한 옳음의 우선성”, “정의의 우선성” 등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시 어떤 좋음(선)에 대해서는 우선성을 부여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그는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위상을 갖는 상위원칙으로서의 선을 설정해야 이런 다원성과 시민적 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적 덕의 강조와 다원주의 존중이라는 두 요소 중에 전자에 우선성을 두고 후자의 요소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때 시민적 덕은 롤즈가 말하는 ‘정치적’ 위상을 가진 덕이 된다. 둘째, 이 문제를 지적한 왈저가 제시하는 방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적 덕의 강조와 다원주의 존중이라는 두 요소 중에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살리는 것이다. 시민적 덕에 대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다원적 공동체의 이해관심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그들이 서로 경합하고 패권을 다툴 수 있도록 정치의 장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들은 인정(recognition)을 획득하게 되고 그 인정을 획득한 공동체의 성원들은 국가적인 바람직

37) 이것은 시민 군사주의 운동을 우려하는 로젠블룸의 질문에 대한 샌델의 답에서 나온 내용이다. Sandel, “Reply”, p.331.

한 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왈저의 예상이다.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볼 때, 샌델은 롤즈의 방안보다 왈저의 방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롤즈의 방안대로 간다면 샌델은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의 기획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했으며, 이 비판이 성립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경우 그의 대안은 의미를 잃는다. 샌델이 왈저의 방안으로 가는 것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시민적 덕의 이상을 놓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적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시된 왈저의 방안은 샌델이 목표한 바를 똑같이 목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목표는 바로 활발한 정치 참여의 삶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나는 샌델의 대안의 핵심적 내용과 그것들에 대한 주요한 반론들을 검토하였고, 그 중에 샌델이 대응해 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보았다. 첫째, 둘째 반론은 샌델이 대응해 낼 수 있으며, 셋째, 넷째 반론은 샌델에게 문제를 남기거나 대답을 요구한다. 첫째 반론은 샌델이 가치통합주의적이고 반근대적이라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샌델이 공론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어법을 살펴보면 그가 정치문제에 있어 특정한 종교적, 형이상학적 도덕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는 여전히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중립성을 도입하여 논의를 마감하는 풍토를 비판했던 것이지, 특정한 종교적, 형이상학적 도덕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근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반론은 샌델이 제시한 시민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와 그다지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샌델은 분명히 자기 통치의 능력으로서의 시민적 덕을 내재적인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인간관과 내용을 달리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샌

델이 특정한 형이상학적 인간관을 지지하고 있다고, 반근대적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의 인간관이 자유주의 인간관과 내용을 다르지만, 그 인간관 역시 그 정치 사회에서 소중히 여기는 정치적 생각들을 재료로 구성된 정치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롤즈의 정치적 인간관이 지니는 위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반론은 그가 시장주의의 확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주권의 분권화는 현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공동체가 주권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이 활발히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정치참여를 하는 사회를 대안으로 삼지만, 그것은 권력의 전국화와 같이 병행되어야만 현실가능하다. 그런데 샌델은 권력의 전국화를 거부한 분권화를 제시하며, 이것은 다른 나라의 많은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현실가능하지 않으며, 지역 공동체의 무장화, 강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넷째 반론은 샌델이 제시한 시민적 덕과 다원주의라는 두 요소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시민적 덕은 보편적 지향성을 가지는 반면, 다원주의는 특수성을 지향한다. 전자에 우선성을 두어 후자를 다스리는 롤즈의 길과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살려서 결과적으로 전자의 것을 성취하는 왈저의 길이 샌델에게 열려 있다. 자유주의 비판의 기획을 토대로 한 자신의 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샌델에게 가능한 대안은 왈저의 길이다.<sup>38)</sup>

38) 본 논문을 심사하고 의견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으나 이 논문의 몇 가지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답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샌델이 롤즈의 이론을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여 비판했는가를 검토하고 그 해석과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논문이 아니다. 물론, 이런 논의는 샌델의 공화주의 논의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의도적으로 롤즈와의 연관에서 샌델을 바라보는 논의를 삼가고 샌델이라는 정치철학자가 제시한 대안이 설득력있는가를 따지는 작업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롤즈에 대한 샌델의 해석과 비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롤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가의 문제는 많은 부분 생략하였다. “원초적 입장”, “공동자산”의 개념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심층적으로 논구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이 샌델의 논의와 그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논문의 의의를 변호해보겠다. 샌델의 이론은 그동안 철학자들에게는 반근대적, 보수주의적 느낌을 주었다. 필자

투 고 일: 2012. 07. 21.  
심사완료일: 2012. 08. 07.  
게재확정일: 2012. 08. 08.

**김은희**  
서울대학교  
BK21 철학교육연구사업단  
연수연구원

---

의 문제의식은 샌델이 제시하는 대안이 반근대적, 보수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집중해 있었다. 샌델이 자유주의(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키피리가 정리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롤즈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입장에 있지 않으면서도 보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샌델의 논의가 문제가 일소된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남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밝혀 내는 것이 이 논문의 두 번째 의도이고 이 논문은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영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 비판」, 『동서사상』제10집, 2011년.
- 김은희, 「자유주의의 중립성 입론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서울대 석사논문, 2000년).
-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민주법학』제46호, 2011년.
- 이인숙, 「M. 샌들의 공동체주의 연구-J. 롤즈의 정의론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고려대철학연구소) 16집, 1993년.
- 홍성우, 「자유주의적 자아관의 한계: 샌들의 롤즈 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28집, 2003년.
- 홍성우,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샌들의 비판」, 『범한철학』 33집, 2004년.
- Allen, Anita & Regan, Milton C. Jr. (ed), *Debating Democracy's Discontent: Essays on American Politics, Law, and Public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98.(이하 DDD)
- Benhabib, Seyla, *Situating the Self: Gender, Community and Postmodernism in Contemporary Ethics*, Polity Press, 1992.
- Galston, William A., "Political Economy and the Politics of Virtue: US Public Philosophy at Century's End", DDD.
- Habermas, Jürgen, *Between Facts and Norms*, the MIT Press, 1996.
- Kymlicka, Will, "Liberal Egalitarianism and Civic Republicanism: Friends or Enemies?", DDD.
- Mouffe, Chantal,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1993.
- Rawls, John,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Rorty, Richard, "A Defence of Minimalist Liberalism", DDD.
- Rosenblum, Nancy L., "Fusion Republicanism", DDD.
- Sandel, Micha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st edition,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1998.

\_\_\_\_\_, *Democracy's Discont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_\_\_\_\_, "Reply to Critics", DDD.

\_\_\_\_\_, *Public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_\_\_\_\_, *The Case Against Perfection*, 2007, 번역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유전학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인간에 대한 반론』, 강명신 역, 동녘, 2010년.

\_\_\_\_\_,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2009, 번역본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김영사, 2010년.

\_\_\_\_\_, *What Money Can't Buy*, 2012, 번역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 순 역, 와이즈베리, 2012년.

Taylor, Charles, "Living with Difference", DDD.

Waldron, Jeremy, "Virtue en Masse", DDD.

Walzer, Michael, "Michael Sandel's America", DDD.



ABSTRACT

## Can Sandel's Civic Republicanism Resolve "Democracy's Discontent"?

Kim, Eun-Hee

Sandel claims the following four theses in his idea of republicanism. First, public forums should not exclude religious or moral discourses. Second, it is the formation of civic virtues in order for people to be capable of self-rule that is the most important good of political society. Third, we need to introduce the political economy capable of precluding 'market society' that extends to every spheres of our life. Finally, the feasible alternative to global 'market society' system is the pluralistic republicanism implying dispersed sovereignty. There might be four main objections to those theses. First, Sandel is an anti-modernist communitarian in that he does not separate the moral or religious sphere from the political, and suggests integrationist values. Second, his republicanism is not distinguishable from liberalism that he makes efforts to criticize. Third, it is not feasible to preclude global 'market society' systems by means of dispersed sovereignty alone. Finally, there is an incoherence in his two main ideas, that is, the conception of civic virtue and the pluralistic republicanism. This essay is to show that first two objections can be replied by suggesting the deeper and more exact interpretation of his ideas, and that, nevertheless, there remain difficulties he needs to resolve as to last two objections. Sandel should deal with them more seriously.

**Keywords:** Michael Sandel, republicanism, liberalism, democracy, civic virtue